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가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에 나섰다.
영하의 날씨에 행사에 참여한 오상우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성화 봉송을 함께했다.
오상우 교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성화 봉송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개최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리더십의 역할’ 특강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6일 본원 4층 중강당에서 병원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리더십의 역할’을 주제로 이진호 병원장을 비롯해 행정처장 등 주요보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을 진행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현재 한국 의료질향상학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 이날 이 교수는 지속적인 의료질향상의 중요성과 환자안전을 위한 리더십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활동 및 자율보고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에 참석한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환자안전과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실험동물 위령제 개최

의과학연구소는 지난 1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법당에서 실험 및 연구에 이용된 동물들을 위로하기 위한 실험동물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위령제는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연구자 및 교직원이 참석해 연구에 이용된 실험동물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생명존중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위령제는 법사스님의 천도의식으로 실험동물을 위한 자비명상, 위훈문 낭독과 헌화,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2006년부터 전임상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동물실험 계획을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사랑재’ 봉사단, 암 환자를 위한 가발 후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암 치료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가발 전달식을 지난 18일 진행했다.
후원은 반갑다 연우야 ‘사랑재’ 봉사단으로부터 가발을 지원받아 본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전달됐다.
환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가발을 직접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하고 착용할 수 있어 가발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갑다 연우야 ‘사랑재’ 봉사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본원 암 환자를 위해 총 60명의 환자에게 가발을 전달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한일전기, 입원환자를 위한 가습기 6대 기부

건조한 겨울 병동 입원환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한일전기는 지난 16일 병원을 직접 방문해 가습기 6대를 전달했다.
가습기를 전달하며 성인병동 및 어린이 병동 환우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